

# 지역기업-인력 효율적 연결...상생의 징검다리 역할 '톡톡'



지난 10월 열린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3차 회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훈련수료자 3명과 훈련참여 2개 기업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앞장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남 인자위)가 지역 기업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남 인자위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일자리 mismatch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내는 성과도 내고 있다.

◇중소기업에 양질의 인력 공급...일자리 mismatch 해결=전남 인자위(공동위원장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게 주업이다. 특히 일자리 mismatch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일자리 정책 수립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것도 전남 인자위의 주요 역할이다.



수요조사→공동훈련→채용까지 '일학습병행제' 등 능력개발 지원 내년 3월까지 취업률 70% 예상 체계적 운영에 타지역 롤모델로

또 산하에 전남지역 인력양성에 대한 각 분과별 전문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전문 분과위원회'와 전남 지역의 주요 담면과제에 대한 '현안 이슈 분과위원회'를 분리 운영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수요조사-공동 훈련-채용'에 이르는 맞춤형 인재 육성으로 인력난 해소와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

◇양성인력 중 70% 취업 성과 기대=전남 인자위는 올해도 공동훈련센터(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2곳과 전문훈련센터(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1곳을 비롯한 7개 파트너 훈련센터를 통해 1832명에 달하는 신규인력 양성 훈련 계획을 확정, 다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했다.

훈련과정은 전체 49개 과정으로, 양성과정과 향상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양성과정은 기계, 전기, 정보통신, 산업응용, 건설·사무관리 등 10개 직종에 16개 과정으로 총 350명의 훈련인원을 양성한다.

또 향상과정은 기계, 기계정비, 정보통신, 전기전자, 비파괴검사 등 9개 직종에 33개 과정으로도

내 재직자 1482명에게 직무능력향상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23일 현재 양성과정 400명과 향상과정 1560명이 참여해 목표 대비 각각 114%, 105%를 달성했다.

결과적으로 올 한해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총 취업자 수는 142명으로, 취업률 51%를 기록했으며, 내년 3월까지 취업자 현황을 감안하면 취업률 70%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인자위는 올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108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내년도 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인력과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전남지역 인력양성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실있는 '일·학습 병행제' 타지역 롤모델 급 부상=전남 인자위는 전남지역 주력 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인력양성 공급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인력양성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올해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2개로 나

누 인력양성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고유하고 인력 공급조절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도입 취지에 맞춰 제도확산과 함께 내실있는 운영으로 타지역 인자위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재 전남 인자위에서는 47개 기업 518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맞춤형 숙련기술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 인자위는 일학습병행제를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대학 재학생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되도록 특성화고교와 연계해 대학 단계에서도 일학습병행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남 인자위는 지역·산업계 주도로 지정된 도제 특구센터의 협력, 지원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참여기업 발굴 및 학습근로자 매칭 등 체계적 지원체계의 구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신규인력의 채용과 훈련방식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인력양성도 모색=전남 인자위는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차~3차 세미나"와 "광주·전남 인력양성 공동 워크숍" 등 다양한 인력양성 활동도 전개했다. 지난 10월 열린 제3차 위원회의에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훈련센터별 훈련실적, 전남지역 수요조사 결과 등 보고와 함께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훈련수료자 부문 3명과 훈련참여기업 부문 2개 기업을 선정, 시상하기도 했다.

전남 인자위 관계자는 "전남의 인력양성 기능을 총괄해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특히 고용전문가와 산업계, 교육훈련기관을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 김호남 전남인적자원개발위 공동위원장

### "맞춤형 인력 양성 컨트롤 타워 충실 中 小 企 일자리 mismatch 대폭 줄일 것"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한마디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집약된다. 출범 3년차 만에 전남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일자리 mismatch' 해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정부 시책인 '일학습병행제'도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호남 전남인자위 공동위원장을 만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전남인자위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훈련 수요와 함께 교육훈련 공급 상황을 파악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매진하고 있다. 일명 '일자리 mismatch'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전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조다.

'공동 수요조사'를 통해 각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 규모·역량 등을 파악하고, NCS(국가직무능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지원 교육수료자 국가자격 부여 추진 내년 공동훈련센터 준비도 '착착'

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을 진행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전남도내 일자리 창출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2016년도 공동훈련 센터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나.

▲공동훈련센터 공모절차는 공동훈련센터 선정계획 수립,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 설명회 개최, 훈련계획서 접수, 훈련분야별 내용전문가로 심사단 구성, 1차 심사(정성평가), 2차 심사(정량평가), 지역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전남지역의 공동훈련센터는 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3개 기관이 신청해 공단본부의 최종 심의단계에 있다.

-2017년까지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해 기업을 1만개까지 확대하고 7만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전남인자위의 일학습 병행제 운영 계획은.

▲현재 전남인자위에서는 47개 기업 518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전남인자위는 제도 확산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일학습병행제를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지원과 대학 재학생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되도록 특성화고와 연계해 대학 단계에서도 일학습병행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질적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학습근로자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지원, 근로기준 산업안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학습근로자의 보호, 도제훈련 수료자의 국가자격 부여 근거 등 제도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

-인력 양성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내년 사업계획은.

▲지역 특성과 지역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해 산업계 인력 수요와 훈련교육기관의 공급 간의 mismatch를 해결하는 것이 주역할이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계가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과거보다 확대시행하고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요조사 결과가 지역의 산업계에 보다 잘 흡수되고 소통·활용될 수 있게 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 분과위원회, 전문가 그룹인터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의체간 연계성 강화와 협의의 효율 등에 초점을 맞춰 전남지역의 고용과 훈련 이슈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올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쪄갠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쪄갠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